

월요논단



정 구 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2026년, 어느 때보다 화해와 평화가 필요한 시대인 지금 모든 종류의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도구로 스포츠는 매우 유용하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언어와 이념,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세계 공통의 언어다. 전쟁과 갈등의 시대마다 스포츠는 ‘평화의 도구’로서 놀라운 역할을 해왔다. 정치와 외교가 풀지 못한 매듭을 스포츠가 느슨하게 만들어왔고, 때로는 화해의 길을 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초기 벨기에 전선 전역에서 발생한

스포츠, 평화를 잇는 또 하나의 언어

암묵적인 정전 사건이 있다.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교전을 나누던 영국군과 독일군 장병들이 암묵적으로 교전을 멈추고 성탄 선물을 교환하며 즐비한 양군 시체들을 치우고 서로 축구공을 차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는 크리스마스 휴전(Christmas Truce)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다. 이러한 교류 이후 이 곳의 전투는 모양만 있고 철저히 서로를 존중해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1971년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는 냉전의 벽을 허문 상징이었다. 작은 공 하나가 양국의 대화를 시작하게 했다. 근래에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 장면 역시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선수들은 국가의 대립을 넘어 한민족의 화합된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었다. 스포츠가 평화를 만드는 힘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다.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써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상호 이해의 가치가 있다.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한다.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 승리를 나누는 배려는 평화를 이루는 기본 덕목이기도 하다.

점차 확대되는 분쟁과 전쟁으로 국제 사회는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스포츠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경기장은 국적과 인종을 넘어 갈등과 연대가 피어나는 공간이다. 관중석의 응원과 악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 공감을 경험한다. 특히 어린 세대에게 스포츠는 상대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자연스러

운 배움의 공간이다. 물론 스포츠가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뢰와 교류의 무대를 열어주는 힘은 분명하다. 난민 선수단이 올림픽 무대에 서는 장면은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희망을 상징한다.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극복하고 어우러지고 웃으며 뛰는 순간, 평화는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스포츠는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잇는 언어다. 경기장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 아름다운 장면이 보내는 격려의 함성은 전쟁보다 강한 화해의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스포츠는 바짝 얼어있는 관계를 녹여 평화를 이루게 하는 또 하나의 길이다. 폭력과 파괴, 비인간적 야만성을 내포한 전쟁이 그치고 민족들간 화해와 평화의 소식 듣게되는 새해를 기대한다.

사설

재정 집중투자·국비 확보, 실천의지에 달려

제주도가 침체에 빠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에 나선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선제적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포석이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목표를 60.5%로 설정했다. 우선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1분기부터 집중 투입한다. 특히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과 이월사업은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한다. 이를 위해 일일 단위 집행 점검, 부서별 찾아가는 사업추진 컨설팅, 정례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집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부여한다. 또 긴급입찰과 각종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활용해 집행 속도를

높인다. 국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올해보다 2234억원 늘어난 2조4576억원으로 설정했다. 1월 현재 183건, 1436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신규사업 발굴은 중앙부처 예산 신청시기인 4월말까지 이어간다.

제주도가 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신속집행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책이다. 제주경제는 건설업을 비롯한 부동산, 숙박업 등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연관 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에선 선제적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의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 국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앙부처와 국회 절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목표 설정은 잘했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다.

양적 확대 집착한 관광정책, 경쟁력 저하

제주도 숙박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엔데믹 이후 관광시장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제주 숙박업이 체감하는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했으나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체류 기간 단축이 맞물리며 숙박 수요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급 구조에 있다. 소규모 숙박업을 중심으로 신규 진입이 이어지면서 초과 공급과 과잉 경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내놓은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 소비는 숙박비 지출을 줄이고 음식·쇼핑 등 체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주 숙박 정책은 여전히 객실 수 확대에 머물러 있다. 수요 변화와 동떨어진 공급 정책은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 업계를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경쟁에서 밀린 영세한 숙박업소일수록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개별 사업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관광 성과를 방편책 수 위주로 평가해 온 제주도의 정책 관행이 구조적 위기를 키운 측면이 크다. 체류 기간은 짧아지고 비정수기 수요는 좀처럼 늘지 않는데, 숙박시설 공급만 확대하는 정책은 더 이상 실효력을 갖기 어렵다. 이제는 체류 기간 연장과 비정수기 수요 분산이라는 질적 지표를 관광 정책의 중심에 두고, 숙박과 숙박업 현황,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 소비는 숙박비 지출을 줄이고 음식·쇼핑 등 체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주 숙박 정책은 여전히 객실 수 확대에 머물러 있다. 수요 변화와 동떨어진 공급 정책은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 업계를

열린마당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박 우 희
제주시 한경면

어느덧 해가 바뀌고 병오년(2026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음식점, 주택임대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되며 종별과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르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사업장이 폐업을 했음에도 관할 행정청 인·허가 부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허가 부서에 반드시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니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창구에서의 현금 납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 납부 ▷위탁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납부전용계좌를 활용한 계좌이체 ▷ARS(142211) 이용 ▷간편결제 앱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 관동·관서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

제일제주인 지속 협력 다짐 “시민 건의 아직도 검토만?”

○…제주도는 24일과 25일 도내 주요 기관·단체와 함께 제일본 제주도민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제일제주인들의 고향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4일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신년 인사회 및 성인식에 참석해 재외도민 사회 발전과 고향 사랑을 몸소 실천한 공로로 제일제주인 3명에게 제주도지사 표창패를 수여.

한편 김애숙 제주도 정부부지사 25일 오사카 제국호텔에서 열린 재일본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신년 인사회 및 성인식에 참석해 제일제주인의 헌신에 고마움을 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제주의 발전상을 설명.

○…지난 21일 제주시 구좌읍을 시작으로 읍면동 연두 방문을 진행 중인 김완근 제주시장 이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하게 지시.

김완근 시장은 지난 23일 시청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경청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아직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일침.

김완근 시장은 시민 건의사항은 검토가 아닌 실행이 우선이라며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구제적 확보 방안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

요소범기자

김지은기자

제주영락교회 葬

제주영락교회 이승선 은퇴장로(향년 88세)께서 2026년 1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였기에 제주영락교회 葬을 알려드립니다.

- 조문 일정 및 장소 1월 26일(월) 제주영락교회 로이홀
- 천국환송예식 일시 1월 27일(화) 오전 5:50
- 천국환송예식 장소 제주영락교회 대예배실
- 장지 : 제주영락동산

배우자 김부자 은퇴권사
아들 이수혁
장녀 이수미 사위 좌용식
차녀 이수지 집사 사위 성기웅 집사
외손주 좌승호, 좌승연, 성진, 성린

※ 연락처
김부자 권사 010-8655-2593
제주영락교회 064-753-1231

장례위원장
제주영락교회 김정서 원로목사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홀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